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대학원 교과 개편 사례연구: 통번역 교육을 중심으로\*

원 중 화 · 진 실 희  
(중앙대)

### 1. 들어가기

급속하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인류 발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교육’이다(홍정민 2020: 5).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차세대 인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롭게 생겨나는 시대에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기관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된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그 뒤를 이은 코로나 팬데믹은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육과 업무, 일상이 비

\* 본 연구는 2021년 중앙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대면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은 ‘딥 러닝’과 ‘빅데이터’에 힘입어 다소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비교적 손쉽고 빠르게 번역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이 초별 번역을 매우 빠른 속도로, 대가 없이 수행해내는 시기에 과연 통번역 전공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졸업 후 현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자신이 가진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인가?

통번역 학계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what to teach)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how to teach)의 문제가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중요한 주제였다. 연구자들은 통번역 학생들의 통번역 역량을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하며,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 노력을 기울여왔다(원종화 2015; 이상빈 2013; 이지민 2015; 이지은 외 2015; 장애리 2011; 한현희 2018).

그러나,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사회 환경과 업무 환경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통번역 교육의 패러다임은 다시 달라져야 한다. 기계번역의 성능이 날로 좋아지고, 많은 분야에서 기계가 통번역사를 대체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업무 환경과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 통번역사들은 과연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할 것인가는 모든 통번역 교육자들에게 던져지는 시대적 화두이자 도전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자들은 재직 중인 통번역 전문대학원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교과 개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교과 과정 하에서 교육받은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와 업무 내용을 개편 이전의 졸업생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향후 2차 교과 개편의 참고 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통번역 학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교육 혁신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성찰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단, 본 연구는 특정 대학원의 맥락에서 진행된 교과 개편이라는 점과, 특히 해당 대학원 내에서도 한영과의 사례로 논의가 한정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 연구 논문은 총 다섯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밝힌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통번역 교과 혁신의 필요성

과 방향성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새로운 교과과정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며, 4장에서는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와 업무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 개편의 가시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전술한 결과를 종합하여 합의를 논하고 결론을 도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 2. 교과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국내 통번역 학계는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의 석사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국내 통번역대학원의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본 후 졸업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지은(2014), 그에 앞서 통번역 연구와 교육과정 개발의 관계를 분석한 정철자(2011),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해 고찰한 안인경(2007)이 있다. 그 외에 번역 교과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번역 능력이 실제 교과를 통해 어떻게 함양될 수 있을지를 개괄한 정연일(2001)과 국내 통번역 교과과정과 해외 통번역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비교 제시한 임향옥(2000)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차별되는 점은 앞장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시대적 배경과 목적이 크게 달라졌다는 데 있다. 앞서 발표된 선행연구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통번역의 교과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현황 분석, 이론, 관점 및 방법론적 제안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 통번역사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인간 전문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장에서는 통번역 교육문제를 다룬 2017년 이후의 여러 논문 중 특히 통번역 교과과정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1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먼저, 번역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신지선(2019: 53)은 전통적인 통번역 교육 내용과 학습 방법을 진지한 고민 없이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학생들이 졸업 후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은 교육 현장과 교수자의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비록 기술 번역(Technical Translation)의 범위로 한정된 맥락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번역은 더 이상 번역가 한 사람이 원문과 씨름하면서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또는 문장 하나를 다른 언어로 옮기기 위해 장시간 고민하는 작업이 아닐 것이며, 따라서 향후 번역사에게 요구되는 번역능력은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것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특성과 요구사항을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통역 교육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통역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임세인(2020: 175)은 사회 구조와 직업 세계의 대변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역 교육이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실패한다면 결국 통역사의 역할과 입지가 축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통번역대학원 교육의 방향성에는 현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세인(2020: 167-72)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통번역대학원의 통역 교육 현황을 조망하면서, 통역 교육에 “테크네 인문학적”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고, 인간의 능력 향상을 필수 요건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직업 세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이고, 따라서 통번역 교육기관 역시 새로운 양태의 일자리와 핵심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통번역 교육에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신지선 2017; 전현주 2017; 김순미 2018; 신지선 2019 등).

## 2.2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통번역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우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번역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역량들이 교과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년도에 진행된 대표적 선행 연구들을 보면 패러다임

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이 교과과정에 반영될 필요성, 그리고 새롭게 확대 진출 가능한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지선(2017: 60-62)은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만큼 기술이 번역의 전반적인 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기술하면서, 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번역사에게는 다음의 새로운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즉, 첫째는 새로운 툴을 학습하는 능력, 둘째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번역하면서 기계가 제시하는 대안 중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식별 능력, 셋째로는 문장 차원을 넘어 텍스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수정 능력이다. 신지선(2019)은 새롭게 요구되는 이 같은 능력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서 “유에서 유를 선택”하는 능력으로 그 변화의 방향성을 묘사하기도 했다.

21세기 전후로 확장된 번역 분야의 현황을 분석한 전현주(2017)는 번역 유관분야들로 수요가 확장되는 현상, 인공지능기반의 다양한 통번역 기술의 등장, 기계번역과 번역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요 동향으로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통번역 교육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공통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고,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능력을 비롯하여 통번역사에게 새로운 역량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이 같은 방향성 하에 변화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간 전문가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순미(2018)는 인간과 기계가 경쟁 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협업을 통해 업무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경영학의 ‘증강 이론’에 근거하여 통번역 분야에서도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 다섯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증강 이론이란 기본적으로 인간과 기계가 짝을 이루어 기계가 하는 일에 인간이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기계가 인간이 하는 일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자면, 기술의 시대에 인간 전문가와 기계가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번역 교육의 맥락에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 선행연구도 있다. 허지운(2019: 255)은 미래형 인재교육을 위해 전통적인 번역을 넘어 선, 보다 확대된 개념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특히, 번역사의 경영자적 능력을 언

급하면서, 번역 과업 외에 번역의 수주나 프로젝트 관리 능력 등 번역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변활동(peripheral activities)의 범위까지 번역사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자 교육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통번역 교육에서 간과되어왔으나 실제로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같은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따라서 번역 교육에 있어서도 번역 역량 자체에 더하여 번역 사업자로서 거시적인 영역으로 업무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확대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번역대학원의 전통적인 번역 강의 형식이 더 이상 시대적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신지선(2019: 52-5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주제별 모듈(정치법률번역, 과학기술번역, 산업경제번역 등)을 기반으로, 선형적으로 설계된 순차적 수업방식이 미래 세대의 번역사를 양성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경쟁력 있는 번역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불필요했던 혁신적인 서비스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번역 교육 방법으로서, 번역 과제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번역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번역사뿐만 아니라 감수자, 포스트에디터, 프로젝트 매니저, 용어 전문가, 기계번역시스템 엔지니어, 에이전시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협업 번역을 통해 대량 과제를 관리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완수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 재교육, 프로젝트 실습 등 현장과 더욱 관련성이 높은 “실제성 교육”과, 직업윤리 교육 등을 포함한 “번역 교육의 통합 패러다임”을 주창했다.

전술한 선행연구들이 번역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20년부터는 통역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임세인(2020: 169-73)은 AI가 직업 자체를 대체하기보다 과업의 일부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을 인용하면서, 통역 과정에서도 단순한 치환 등은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인간 통역사 고유의 감성, 협업, 소통, 윤리적 사고 등에 대한 훈련을 보충하고, 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윤리 등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소통 과정에 수반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에 주목하면서, 단순한 정보 전달 외에 제스처나 움직임, 음성 등에 나

타나는 화자의 상호작용과 대화 참여자 간 관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미래 통역사에게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미세한 뉘앙스나 설득력, 발화의 기저에 깔린 의도 등의 중요성이 높은 외교, 협상 통역 상황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같은 능력을 함양할 경우 통역사는 기계로 대체되기보다 협업을 통해 기존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외 다양한 분야에 걸친 융합형 주제지식, 다양한 통번역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디지털 문해력, 새롭게 부상하는 유관분야 확장 진출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진로 지도, 전문분야와의 복수 학위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요약하자면, 임세인(2020)은 기존 통번역 교과목을 유지하되, 통역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능력, 통역 시장에 대한 정보와 이해, 고객 등을 상대하는 소통능력, 자기 계발 능력, 윤리의식 등의 내용들을 교과과정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상의 선행연구가 교과 개편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전문가는 기계를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 협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통번역 유관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를 갖는 새로운 직무나 서비스에 눈을 뜨고 확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번역을 단순 과업으로 인식하기보다 시야를 넓혀 번역 경영자적 능력을 함양한다. 다섯째, 기계와 차별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을 찾고 보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상의 고찰을 직무 및 직군과 연계하여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번역의 경영적 능력에는 번역 사업의 홍보, 회사 설립 및 운영 관리 능력, 재무관리, 건적과 입찰, 소통 및 협상 능력, 기술 활용 능력 및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가적 능력이 필요하다.<sup>1)</sup> 증강 이론을 직무와 연관하여 예를 들자면, 세부적인 일은 기계가 처리하고 인간은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하에서, 인간은 기계를 활용하면서 업무 전반을 분석, 기계화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미 기계화가 된 부분을

1) 허지운(2019: 271)은 설문조사를 통해, 전통적인 번역물 품질 결정요소인 정확성, 전문용어 사용, 일관성, 표현력 등 이외에도, 번역 의뢰 과정에서의 신속한 대응, 체계적인 건적과 청구 절차,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개선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순미(2018: 11)에 따르면 이미 다국적 기업 내 번역가와 PM 업무의 많은 부분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협업하는 인간의 대인관계 지능을 활용하는 전략에 따르는 고객 응대와 소통 기술이 필요하다. 고객 응대나 소통 기술은 그동안 통번역 교육에서 크게 간과되어 온 부분이지만 세계화를 추구하는 회사의 번역 업무 중 많은 부분은 이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기계가 만들어낸 오류를 인간 전문가가 보완하는 전략에 따라 인간 전문가는 CAT 도구 사용능력과 번역물을 교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프리에디팅과 포스트에디팅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자동화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문 분야를 찾아 본인만의 분야를 개척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카피라이팅이나 콘텐츠 제작, 트랜스크리에이션<sup>2)</sup>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아직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채워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능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계학습 지식을 갖춘 이공계 출신의 통번역 전공자들이 기량을 펼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변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과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다룬 연구는 통번역 관련 소프트웨어 및 테크놀로지 교육으로 범위를 한정한 진실희(2019) 등 극히 일부의 선행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전문대학원에서 2017년부터 준비에 착수해 2018년부터 실시된 교과 개편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워보고자 한다.

### 3. 1차 교과 개편

본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원에서 2018년부터 실시한 1차 교과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편 과정을 서

2) 원문에 없는 내용을 만드는 것이 “창작”이라면 트랜스크리에이션은 원문에서 “파생”된 텍스트 제작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순미 2018: 11).



술하고,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교과 개편 전후로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와 업무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1 통번역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교과 개편 작업이 시작된 2017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며, 미래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구글번역기와 같은 인공지능 기계번역의 성능이 기존의 통계기반 기계번역과는 현저히 다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통번역 학계와 업계의 가장 큰 화두 역시 인공지능과 인간 전문가 사이의 대결 구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언어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가시화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미국의 언어서비스 시장조사 전문기관 CSA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글로벌 언어서비스 시장은 2019년 기준 6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이후 3년 동안 6~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통적인 면대면 통역에서 원격통역으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으며, 과거보다 다양한 통역과 번역 테크놀로지 솔루션 및 플랫폼이 언어서비스 산업 영역에서 연이어 등장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 1~3위 국제회의 유치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였다. 세계에서 가장 국제회의와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이중언어 소통능력을 겸비한 국제회의 진행자(MC)의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아울러 K-pop, K-drama의 세계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졌고, 자막번역, 웹툰 번역, 웹 소설 번역 등 문화콘텐츠 번역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방송(라디오, TV) 진행자(MC, 리포터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었다.

가까운 미래에 기계번역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던 당시의 분위기에 불구하고, 기술발전의 속도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작업은 수월한 작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를 대비하고 이들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시대적 수요에 따라 혁신하는 작업은 반드시

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변화의 정확한 속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통번역 산업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하고, 시장 수요에 맞지 않는 오래된 전통적 교과목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1차 교과과정 개편의 기본 방향이 정해졌다. 단, 새로운 교과목 신설은 실수요가 있는 통번역 유관분야, 즉 언어서비스 분야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당시 개편한 새로운 교과과정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완벽히 준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교과과정의 개편에는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과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자들을 포함한 소속 학과의 판단이었다. 지나치게 시장의 변화보다 앞서가면 교육기관의 구성원들, 특히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교육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새로운 교과를 운영하면서도 체감한 것으로, 신설되는 교과에 대해 전통적인 통번역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1차 교과 개편은 시장의 수요를 보수적으로 따르는 형태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새로운 교과목을 통해 새로운 직무로 확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으로 시행되었다. 이상 본 절에서는 교과 개편 당시 통번역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조망해보았고 다음 절에서는 교과 개편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 3.2 교과 개편 절차

본 연구자들이 소속된 전문대학원은 국제학과와 통번역학과의 함께 운영되고 있는 해외 통번역대학원을 벤치마킹하여 2005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약 15년 간 졸업생들은 정부 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 인하우스 통번역 전문가 또는 프리랜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과과정 개편 작업이 시작된 2017년 여름 당시에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세기의 대결 이후 기계번역이 통번역 업계와 학계에서도 큰 화두가 될 때였으며, 해당 통번역 석사과정이 창립 10주년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연구자들은 소속 대학

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교과개편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교과개편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해당 대학원 3개 전공언어 학과가 모두 교과개편 과정에 참여했다. 사업 확정 후 3차례(2017. 6. 28, 2017. 7. 12, 2017. 7. 26, 2017. 9월 중순)에 걸쳐 교과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후속 회의를 통해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 및 논의하였으며,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특강 형태로 초빙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을 얻고 CAT 도구를 비롯한 관련 재교육을 받았다.

전체적인 교과 개편의 절차는 Kelly(2005: 3)에서 제시된 교과과정 설계 순서에 따라 첫째, ‘사회와 시장 요구’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통번역 시장 조사 전문가기관인 Common Sense Advisory(2017)의 연간보고서를 비롯한 글로벌 언어서비스 산업의 시장 통계와 선행 연구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둘째, ‘목적과 의도된 결과’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번역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통번역과 관련한 언어서비스 분야 등으로도 확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다시 말해 실제 직무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셋째, 2년에 걸쳐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목의 순서와 구조를 적절히 배치하여 전통적인 통역과 번역 강의의 비중이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통역과 번역 강의 외에 신설되는 강의는 첫 학기와 마지막 학기를 피해서 3학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통번역 석사과정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통번역 강의의 비중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했다.

다음으로 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추가적 필요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교수진의 재교육과 경력 있는 유관분야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방식으로 담당 교수진을 확보하였다. 특히, 영어 MC나 Technical Writing, 원격회의 통역,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 등의 새로운 강의에는 기존의 통번역 교수진에 대한 재교육과 함께, 경력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한 겸임교수 제도를 활용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 대학원 전체 구성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특강시리즈를 운영하였다. 새로운 교과로 배출된 졸업생이 누적되면서, 향후에는 신규 개설과목에 대한 본교 출신의 교강사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과 개편과 담당 교수 확보 이후에는 강의 별 담당 교수와 교수학습 활동 설계와 운영, 평가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어서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게 되면서 교수자 확보와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인프라구축과

이를 위한 재원 확보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두 가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했는데 첫째는 컴퓨터보조번역(Computer-Aided Translation, CAT) 프로그램 구입과 이를 위한 전용강의실, 그리고 원격통역 환경을 비롯하여 최근의 산업계 동향을 반영한 새로운 동시통역 실습 환경 구축이 필요했으며, 또한 새롭게 개편된 교과 내용과 취지에 맞게 인프라를 설계해야 했다. 가령 협력번역 과제 등의 요구에 맞춰 CAT 전용강의실의 배열을 전형적인 강의실 형태에서 벗어나 회의실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강의실 측면에 큰 회의 테이블을 두고 컴퓨터 책상의 배열을 U 자로 하는 등 팀워크에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주문했다. 둘째로, 원격 및 화상통역 환경은 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단계별로 사양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1차 연도에는 CAT 전용 인프라에 먼저 투자했고 원격화상회의 통역실습실은 저가 사양으로 기존 실습실에 구현한 이후, 2차 연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2020년에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되어 원격 동시통역과 회의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강의실이 네 곳 완공될 수 있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신청하였고, 다행히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교과 개편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 3.3 전체적인 교과 개편의 내용

2017년 학교의 연구지원을 받아 개편된 교과목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선행 연구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선형적 모듈 형태, 다시 말해, 주제 분야별로 진행되어 오던 번역 강의를 통합하고 새로운 역량을 보충할 수 있는 강의들이 신설되었다. 예를 들어 통번역에 대한 이론 강의를 제공하던 ‘통번역 입문’ 강의는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라는 강의로 대체되면서 시장 동향 자료와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번역 메모리(Translation Memory), 용어집(Termbase), CAT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번역 및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과목별 기본적인 교육 목적과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18년 개편된 교과의 전후 비교

구분	2018년 전	2018년 이후	관련 직무/특징
1	통번역 입문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	통 번역 테크놀로지, Memsorce(CAT), WIPO 용어전문가 실습 프로젝트
2	과학기술번역	로컬라이제이션 & 포스트에디팅	Trados (CAT/TM/TB) 사용한 팀번역, 인증시험
3	산업경제번역	글로벌 비즈니스 번역	양방향 현장형 텍스트
4	국제정치법률번역		
5	문화예술 멀티미디어번역	문화콘텐츠 번역	Webtoon, 광고, Web 소설, 자막번역
6	모의 회의 1	모의 원격& 화상회의	원격/대면 하이브리드 다국어 동시통역 실습
7	모의 회의 2	리더포럼	연사 초빙 특강 다국어 동시통역
8	번역 프랙티컬	T&P Communication	Professional MC/Moderator, Announcer Training/ Technical Writing
9	비학위 교육과정	문화콘텐츠번역 교육과정 등	외부전문가/기관 진행
10		CAT Certification	Trados, Memsorce

### 3.3.1 T&P 커뮤니케이션

기존의 ‘언어 클리닉’과 그 성격이 중복되었던 ‘B언어 숙달’ 강의를 ‘T&P 커뮤니케이션’ 강의로 개편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변경했다. ‘Technical & Professional 커뮤니케이션’의 약자로 명명된 해당 강의에서는 영어 아나운서 겸 MC를 겸임교수로 초빙하여 전달력 향상, 언어적 및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호흡/발성, 개인별 최적의 음성 찾기, 장르별 리딩 스킬을 비롯한 아나운싱 기본기, 이중언어 진행 등 이중언어 진행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키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부터는 8주의 MC 강의 외에 공동 강의의 형태로 Technical Writing을 학습 내용에 추가해 번역능력 확장 분야 중 하나인 Technical Writing 직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본 수업을 통해 학습한 이중언어 진행기술은 4학기 GSIS 리더포럼 특강과 대학원의 각종 행사를 통해 실전에서와 같은 실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 3.3.2 모의 원격 & 화상회의

기존에 대면으로만 진행되던 다국어 모의 회의를 대체한 것으로, 실제 국제 회의 상황을 상정하여 다국어 동시통역 릴레이 실습을 진행하고, 회의 환경 별 유의사항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습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된 여러 동시통역 실습실을 원격회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화상회의, 원격통역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는 네트워크나 장비, 기술에 미비한 점이 있어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완공된 하이브리드 인프라로 원활한 실습이 가능해졌다. 그 외에 MC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접목하도록 학생들이 사회자 역할을 맡아 수업을 주도하도록 했다.

### 3.3.3 문화콘텐츠 번역

문화콘텐츠 번역은 기존의 문화예술번역을 대체한 것으로 K-문화의 확산 및 디지털 콘텐츠, 유튜브 활성화로 인해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 번역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했다. 웹툰과 웹 소설, 자막번역 등 장르의 주 업무 형태인 한영번역 실습을 위해 통번역 석사학위를 갖춘 원어민 교수가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 분야로의 진출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원 차원에서는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콘텐츠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해당 분야로 특화를 원하는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 3.3.4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

기존의 통번역 입문 수업을 대체한 통번역 테크놀로지와 코퍼스 수업에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사용이나 학습이 쉬운 Memsources라는 CAT 툴을 먼저 배우고, 다국어 통번역 코퍼스와 전문용어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했다. 3개 언어 전공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 대형 강의에서는 언어 간 협력과 PM 등의 역할을 지정하여 대형 번역 프로젝트를 상정한 협업 학습과 각종 통번역 테크놀로지에 대해 배우고, 실제 프로젝트를 체험하도록 설계했다. 2020년부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전문용어 구축 프로젝트를 실시하

여, 국제기구 용어전문가(Terminologist)의 업무를 체험하면서 구축한 결과물이 실제 WIPO Pearl 전문용어 사이트에 게시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했다.

### 3.3.5 로컬라이제이션 & 포스트에디팅

CAT 사용과 함께 로컬라이제이션 번역 수업과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받는 수업으로 설계되었다. 이 수업에서는 CAT 전용강의실에 설치된 Trados를 이용한 번역 수업을 받도록 했다. 다만 기존의 번역과는 달리 팀워크를 통한 번역과 제와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기본 지식과 지침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2018년 당시에는 포스트에디팅이 크게 관심을 받기 전이라 CAT 툴을 활용한 로컬라이제이션 번역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한 학기 수업을 수강한 재학생들에게는 Trados 인증시험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로컬라이제이션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련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4. 졸업생들의 업무 추이 분석

이번 장에서는 위의 3장에서 상술한 교과 개편이, 실제 통번역 현장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나 담당 업무 내용 관련하여 어떤 가시적 변화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4.1 분석 절차

#### 4.1.1 분석 방법

본 연구자들이 재직 중인 전문대학원의 통번역연구소 부설 통번역센터는 통번역사 인력 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졸업생들의 이력서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해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되어 있는 졸업생들의 업무 이력을 기본 분석 데이터로 했으며, 업무 내용 등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해 문의했다.

졸업생 중 교과 개편 이전 3년 간 취업 시장에 진출한 졸업생들과 개편 이

후 3년 간 취업한 졸업생들의 업무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폈으며, 졸업생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활동하는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임세인(2018: 149)이 보고했듯이, 통번역대학원 졸업생들 가운데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또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정치않은 프리랜서 통번역사들에 비해,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 유형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어서 시장 수요와 대응의 향방을 가늠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도별 비교를 위해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근무하는 졸업생들의 첫 번째 직장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졸업생들이 두 번째 직장을 선택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전 직장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기간에 따라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고, 이에 따라 업무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반해, 첫 직장의 경우는 주로 본인의 선호도보다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첫 직장에서 부여받는 업무의 형태가 교과 개편의 효과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 4.1.2 분석 대상 졸업생

분석 대상 졸업생은 총 129명이고 이중 남학생이 17명, 나머지 112명은 여학생이었다. 다음 <표 2>에서는 분석 대상 졸업생을 연도별로 구분했다.

<표 2> 졸업연도별 분석대상 졸업생 수

졸업생 그룹	졸업년도	분석 대상 졸업생 수		
		남자	여자	합계
A	2016.2	0	11	11
B	2017.2	1	18	19
C	2018.2	3	14	17
D	2019.2	6	28	34
E	2020.2	6	18	24
F	2021.2	1	23	24

본 연구의 대상인 교과 개편이 2017년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8년도부



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A, B, C 졸업생 그룹은 개편 이전의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고, D, E, F 그룹은 개편된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다. 또 한가지 통번역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창궐이 시작된 것이 2019년 말이었으므로 특히 E, F 그룹은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 시기에 취업 시장에 진출한 졸업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 4.2 분석 결과

### 4.2.1 정부 기관 대 민간 기업 비율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근무하는 졸업생들의 근무 기관은 정부부처, 준정부기관, 공기업, 대사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방송국,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했다. 본 연구에서는 졸업생들의 다양한 소속 기관들을 크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두 항목으로 분류하여 연도별 취업 추이를 살펴보았다.

통번역사 고용과 관련하여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비교해보자면, 통번역대학원 졸업장 이외에도 해외 체류 경력 등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통번역사를 채용하는 경향이 더 높은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전문통번역 교육을 받은 통번역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박지영 2016: 132). 역으로 말하면 정부기관은 주로 통번역사의 업무를 통번역 자체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민간 기업은 물론 개별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번역사에게 기대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정부기관 보다 더 다양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 채용된 졸업생들의 연도별 수치이다.

<표 3> 정부기관 대 민간기업 취업비율

졸업생 그룹	졸업년도	민간기업		정부기관	
		졸업생 수	비율(%)	졸업생 수	비율(%)
A	2016.2	6	54.5	5	45.5
B	2017.2	11	57.9	8	42.1
C	2018.2	12	70.6	5	29.4
D	2019.2	23	67.6	11	32.4
E	2020.2	15	62.5	9	37.5
F	2021.2	13	54.2	11	45.8

위의 표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빠른 속도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 2018~2019년 경에는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통번역사의 역할이 보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추세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응할 수 있는 통번역사를 키워내고자 하는 교과 개편의 목표에 부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말의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 역시 함께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의 도래와 경기 회복이 맞물리고,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번역사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4.2.2. 진출 분야

전통적으로 전문통번역사를 양성하는 통번역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은 크게 통번역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언어 숙달을 위한 교육, 그리고 통번역을 위한 주제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지은 외 2014: 56). 특히 다양한 국제 교류의 장에서 전문통역사로 활동할 졸업생들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외교, 경제, 금융, 과학기술 등 전통적으로 통번역대학원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전문 주제들 이외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분야나 주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이번 장에서는 특히 교과 개편 이후 개정된 과목의 수업을 듣고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이 진출한 분야를 개정 이전의 졸업생들의 진출 분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4〉 업무 분야 별 진출 졸업생 숫자

			A	B	C	D	E	F
전 통	정 치	외교		1				1
		개발원조						1

적분 분야	경제 금융	군사		2				
		금융/보험	1	3		2		1
		통상/무역	1	1	2	2	1	2
		광고	1	1				
		경제		2		3		1
	사회 문화	세무						
		복지	1					
		고용		1			1	1
		레저/관광						
		행정						
		종교						
		법률						
		특허	1					
		교육		1	1	1	1	
		인문학						
	과학 기술	번역업						
		IT	1		1	3		3
		반도체	1			3		
		전자		2	1	2		1
		에너지/원자력		1		1		
		생명공학			1			
		환경						1
		해양					1	
		산림			2			
		통신						1
	산업	석유화학				2		
		의료보건		1	1	2	2	1
		산업정책					3	2
		화장품	1					
		자동차	1			1	6	1
		식의약	1		1		3	1
		건설건축	1	2	1		2	1
	비전통적 분야	완구		1				
유통				1				
디지털콘텐츠					1	1	1	
	디지털유통				3			
	방송/언론				1		1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업생들의 진출 업무분야는 상당히 다양

했다. 이를 이지은 외(2014: 63)에서 제안한 분류 항목과 비교해보자면, 정치외교(외교, 국제관계, 개발원조, 군사), 경제금융(금융, 보험, 통상, 무역, 광고, 경제, 세무), 사회문화(복지, 고용, 레저, 관광, 행정, 종교, 언론, 방송, 법률, 특허, 교육, 인문학), 과학기술(IT, 반도체, 전자, 에너지, 원자력, 생명공학, 환경,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유통, 해양, 통신, 석유화학, 의학, 보건)등의 전통적 분류 항목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있으며, 이에 산업(산업정책, 화장품, 자동차, 식의약, 건설건축, 완구, 유통) 항목을 추가할 수 있었다.

<표 4>에 나타난 업무 분야 중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교과 개편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디지털 콘텐츠분야와 디지털 유통분야, 그리고 방송분야 등을 꼽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들은 AI 기반한 영어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거나, 게임번역회사에서 게임 콘텐츠를 번역하고, 로컬라이제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기존의 통번역 업무이외의 다양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에서 근무하는 졸업생들은 교과목의 일부로 포함된 TRADOS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번역과 포스트에디팅 등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그밖에 방송사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졸업생들은 특히 아리랑TV나 TBS e-FM등의 영어 전문 방송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작가 역할을 하거나, 고정 게스트, 리포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들은 모두 교과 개편이 적용된 D, E, F 그룹에 속해 있어, 해당 과목들을 이수하고 나간 졸업생들이 이를 발판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 4.2.3 수행 업무

교과 개편의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졸업생들이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역 들이었다. 본 통번역센터의 인력풀 데이터베이스에는 등록된 졸업생들의 직장 내외에서의 업무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이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이전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통번역사, 혹은 영문메디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로 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이 통번역 중에서도 특히 번역, 그리고 기타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지은

(2017: 97)의 보고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2019년이 넘어서면서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 내외에서 통번역이외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표 5> 통번역이외의 수행 업무

그룹	직장 내에서 통번역 외 수행업무	직장 외에서 통번역 외 수행업무
D	-AI기반 영어교육 콘텐츠 제작 -글로벌 여행사에서 콘텐츠 로컬라이징과 번역 업무 병행 -연구소에서 조달시장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technical writing) -통번역이외 IR피칭(presentation)	-영상콘텐츠 번역과 감수 -번역회사에서 QM -영어MC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행
E	-의약품 QA 실사 -해외 PR 관련 업무, 보도자료작성 (홍보 회사)	-번역과 포스트에디팅 -방송국 영어리포터 -영어MC -국제결혼 영어사회 -영어 방송 진행
F	-Project Assistant Officer (소통, ppt 발표 등) -여론동향 보고서 작성 -박람회 전시 큐레이팅 스크립트 작성, 의전담당 관리, 대학생 서포터즈 스크립트 작성과 교육 -로컬라이징 담당 -방송국 영어프로그램 제작 -번역과 포스트 에디팅 -게임 콘텐츠번역과 로컬라이제이션 업무 담당	-영어방송 고정게스트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과 개편 이후에 시장에 진출한 졸업생들은 전통적인 통번역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을 소화해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로컬라이징 업무에 참여하고, AI-기반 영어교육 콘텐츠 제작, 영상 콘텐츠, 게임 번역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번역과 감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T&I Communication 수업 중 다루어지는 전달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영어MC, 영어방송 진행자 또는 리포터, 기자, 국제결혼 영어사회, 영어프레젠테이션 대행, IR 피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보고서, 보도자료,

큐레이팅 스크립트, 영어프로그램 등 다양한 텍스트들을 산출해내는 technical writing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특기할만한 점으로, 위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졸업생들은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족하기보다는 직장 밖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찾아 직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통번역사들로서 인하우스와 프리랜서를 겸직하면서, 업무의 안정성(security)과 유연성(flexibility)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직무에 대한 개념 변화 역시 추후 2차 교과 개편에서 반영해야 할 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 5. 종합 논의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번역 산업 전반과 일반 대중의 일상에서 빠른 번역 결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기계 통번역 시대의 파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계에 대체되기보다는 기계를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통번역사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연구의 대상인 교과 개편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보완함으로써, 통번역 전공자들이 전통적인 통역과 번역을 기반으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더욱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비록 아직은 초기 결과에 불구하고지만,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2018년 글로벌 언어서비스 시장과 업계의 동향,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에 기초해 단행한 교과 개편의 방향성이 학생들의 사회진출 분야와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아직 교과 개편의 초기 결과에 불과하며, 참여 인원이 한정되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 연구대상 전문대학원에 국한된 고유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그 외에도, 졸업생들의 업무 변화가 온전히 교과 개편의 직접적인 결과인지, 혹은 전반적 시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후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의 추

가적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과 개편 사례연구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향후 많은 후속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졸업생의 활동 양상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꾸준히 그 결과를 확인한다면 의미 있는 중단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변화는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통번역 업계와 학계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이 큰 화두가 되어왔다. 이 같은 시점에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의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방법, 그리고 그 효과를 고찰한 본 연구가 통번역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모델의 하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순미 (2018) 「AI시대 인간번역과 기계(NMT) 번역의 공존-경영학 ‘확장(Augmentation) 전략’ 중심», 『통역과 번역』 20(2): 1-32.
- 박지영 (2016)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고용 현황과 직무 분석: 통번역 비전공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127-52.
- 신지선 (2017)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통번역학연구』 21(4): 51-71.
- 신지선 (2019) 「번역 교육의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 제안», 『통번역교육연구』 17(2): 43-62.
- 안인경 (2007)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고찰: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0(2): 85-103.
- 이상빈 (2013) 「학부 번역전공자의 교정교열(revision)에 관한 사례연구: 번역역량에 따른 비교의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14(5): 169-94.
- 이지민 (2015) 「통역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용 툴 개발 제안」, 『번역학연구』 16(5): 113-34.
- 이지은 (2017) 「통역사의 직업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 통역사 비교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3): 85-109.
- 이지은, 유효미, 전양주, 정희정 (2014) 「통번역학 석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졸업생 설문조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사례연구」, 『T&I Review』 4: 51-71.
- 이지은, 장애리, 허지운 (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제안: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6(3): 197-228.
- 원종화 (2015) 「국내 통역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번역학연구』 16(1): 35-64.
- 임세인 (2018)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조직 내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0(1): 147-76.
- 임세인 (2020) 「포스트휴먼 시대의 통역사 교육: 테크네인문학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24(2): 159-79.
- 임향옥 (2001) 「Curriculum Design for School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Journal of th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stitute』, 5: 129-53.
- 장애리 (2011)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이론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169-202.
- 전현주 (2017)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번역산업 현황 및 통번역 교육의 미래」, 『통번역교육연구』 15(3): 235-61.
- 정연일 (2000) 「번역 교과과정의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 고찰」, 『통번역학연구』 4: 69-86.
- 정철자 (2011) 「통번역 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T&I review』 1: 127-39.
- 진실희 (2019) 「4차 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융합 통번역교육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0(4): 189-218.
- 한현희 (2017) 「한국의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번역학연구』 18(1): 171-202.
- 허지운 (2019) 「수요자 니즈와 번역 프로세스 기반 ‘번역경영’ 교육」, 『번역학연구』 20(4): 247-78.
- 홍정민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에듀테크』, 서울: 책밥.



Donald A. DePalma, Hélène Pielmeier, Arle Lommel, and Robert G. Stewart  
(2017) *The Language Services Market: 2017*, MA: Common Sense  
Advisory.

Kelly, Dorothy (2005)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Manchester &  
Northampton: St. Jerome Publishing.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urricular Reform:  
A Case of a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T&I**

Won, Jong-hwa · Jin, Sil-hee  
(Chung Ang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of a curricular reform implemented at a graduate school of T&I in Seoul. Based on an overarching goal to empower T&I professionals to pivot into various emerging realms of the local language services market, the graduate school implemented an overall curricular reform in the face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The research gives a thick descriptive account of the overall context and details of the new curriculu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new courses, hiring of professionals in the emerging realms of language service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infrastructures to support the new curriculum. Finally, the research reflects on the past 3 years of new curricular design and its implementation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next phase of curricular reform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changes in the T&I landscape.

- ▶ Key Words: curricular reform, education paradigm, 4th industrial revoluti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I pedagogy
- ▶ 주제어: 교과개편, 교육 패러다임, 4차 혁명 시대, 통역과 번역, 통번역 교육

원종화 (제1저자,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부교수  
wonjh@cau.ac.kr

관심분야: 인지과학, 통번역과정 연구, 통번역 교육, 문화와 통번역

진실희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조교수

ke9740@cau.ac.kr

관심분야: 교육공학, 통번역 교육, 언어서비스 기술, 통번역 테크놀로지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2일